

전남도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 유치 사활

인천·경남 등과 '3파전'...행안부 내달 타당성 결과 발표

전남도가 가장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유치는 전남도와 인천시, 경남도 3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섬발전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와 개발을 총괄할 국립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으며, 다음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정부의 의지와

타당성 조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돼 사실상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은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섬을 끼고 있는 전남도와 인천시, 경남도 등이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다. 전국 섬의 6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사활을 걸었다. 전남에는 2165개의 섬이 있으며, 유인도 276개(전국의 57.3%)와 무인도 1889개(전국의 64.5%)다.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을 주장해 행안부에 용역을 제안한 전남도는 자체적으로

내년 1월 구체적인 진흥원 설립 방안에 대해 용역을 할 예정이다. 예산은 이미 5000 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 내년 2월 국회 도서발전모임(대표 박지원 의원)도 토론회를 열어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사)한국글로벌섬재단 창립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박우석 목포포럼 상임공동대표)는 2일 오후 5시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발기인대회를 연다. 한국글로벌섬재단은 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공론화를 통해 섬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물론, 섬 살리기를 위한 국민적 실천 운동을 다각도로 전개할

예정이다. 재단 창립준비위는 "섬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계획까지 발표한 만큼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낙후지역으로 방치되어온 섬의 발전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인천과 경남 역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 섬 진흥원 유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이 제안한 진흥원이 전남으로 오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내년 섬의 날 국가행사 유치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

영광 불갑산 도립공원 연내 지정

전남도 오늘 설명회

영광 불갑산이 전남도립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2일 영광 불갑면사무소에서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도립공원 설명회를 연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다. 도립공원 지정 타당성과 그동안 추진상황 등을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에게 설명, 도립공원 지정·고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영광군은 지난 2017년 1월 지역 명산인 불갑산의 자연경관과 문화·역사 자원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이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해줄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다. 최근 중앙부처인 환경부·산림청·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남도는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불갑산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7번째가 된다. 전남에는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과 무안·신안·별교 갯벌 등 모두 6곳 28만 9787km²가 도립공

원으로 지정돼 있다.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대상지는 불갑면·묘량면 일원 6.89km² 규모다. 지구별로는 공원자연보전지구 3.53km², 공원자연환경지구 3.34km², 공원문화유산지구 0.02km²다. 국공유림 0.09km²(1.13%), 사유림 6.80km²(98.7%)이다. 사유림 중 51.2%인 3.53km²가 불갑사 소유의 사찰림이다. 불갑산은 전남 최북서지역에 위치한 명산이다. 수령 700년 정도된 천연기념물 참식나무의 북방한계선이며, 국내 최대 규모 상사화 군락지가 있어 자연생태계의 보존 가치가 높다. 또 백제불교를 최초로 전래한 중국 승려 마라나타가 창건했다는 불갑사에는 국가·지방 문화재 수 십점이 있고, 정상에 연설봉에서 바라보는 서해낙조의 아름다운 일몰은 포함산의 일출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송경일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불갑산 도립공원 지정 시 도내 산악형으로는 4번째가 된다"며 "앞으로 서북지역의 관광활성화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장 담그기' 무형문화재 된다

된장과 간장 등을 만드는 과정인 '장(醬) 담그기'가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콩을 발효해 먹는 '두장(豆醬)' 문화권에 속했다. 조선 시대에는 왕실에서 장을 따로 보관하는 장고(醬庫)를 두었으며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醬) 담그기'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예고된 '장 담그기'는 콩을 삶아 매주를 만들고 건조, 발효시키는 전반적인 과정을 포괄한다. 고대부터 전승된 '장 담그기'는 음식 조리법이나 식문화 등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 가능하다. 또한 주거문화, 세시풍속, 기복신앙, 전통과학적 요소 등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리나라 '장 담그기'는 콩 재배, 매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제조법이다. 또한 시간장을 이용해 수년 동안 결장의 형상을 거친다는 점도 한국의 장 담그기가 갖는 특징이다. 다만 문화재청은 '장 담그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각 가정 중심으로 현재도 자연스럽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제133호), '제염'(제134호)처럼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새로운 평화의 시대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해상·공중 완충구역에서 포사격과 기동훈련, 정찰비행 등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1일 오전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 인근에서 해병대원들이 경계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유지

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 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바뀌게 된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유지하면서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검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양국은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지휘체계를 검증하는 절차 중 검증 이전평가(Pre-IOC)를 생략하고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 검증 이후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 이어지게 된다. 내년부터 기본운용능력 검증에 돌입하고 이후 단계적인 검증 절차가 원활히 추진되면 문제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는 이번 SCM을 계기로 올해 12월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정부, 쌀 목표표價 18만8192원

"물가상승 반영 국회서 19만4천원으로 인상 협의"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18만8192원(80kg당)으로 제시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4000 원 수준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법령을 근거로 2018~2022년 쌀 목표가격을 이같이 산출해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목표가격은 기존 18만8000원보다 192 원 오른 가격이다. 목표가격은 변동직급 지급을 위한 기준가격으로, 5년 단위로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 반영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농업 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농업인의 실질 소득 보전을 위해 이번엔 변경되는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관련 법률 개정 완료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

라 산정한 목표가격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가상승률 반영 시 가격은 19만4000 원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그 정도만 실질적 정부안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기호 농식품부 장관도 여러차례 '19만4000 원+α'를 쌀 목표가격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최종 결정될 적정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논의의 범위가 넓지만 내년 예산안과 함께 11월 말까지는 처리될 바란다"고 말했다. 농민단체 등에서 쌀 목표가격을 23만 원 이상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안에 대한 반발 우려를 두고는 "농민단체와 다양한 경로로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어서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미,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사 유지

사령관 한국군 대장·부사령관 미군 대장 '연합방위지침' 서명

한미는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작권전환제 환수(전환) 이후에도 주한 미군과 연합군사령부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과 같은 형태의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면서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미래 연합지휘구조에도 합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방부 장관은 이날 SCM 회의가 끝난 뒤 이런 내용이 담긴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

방위태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전략문서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상징인 주한 미군은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되 연합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연합사는 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고 있지만, 전작권 환수 이후에는 바뀌게 된다. 한미는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 투자자 모집 ★

- 경매 입찰/낙찰 물건
- 연 30% 이상 수익가능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주)오천경매.010-3605-5000

임야

지분물건/문중산 환영

바로합니다.010-6834-7400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시66주년

광주광역시 인구조조사위원회 광주전남지회

'드든' 육아 성공비법

함께 하면 든든 육아 성공비법

직장난치문화 제로법

직장생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육아 비법

수퍼맘 방지법

육아를 도와주는 방법에서 알게 하는 노하우

육아훈수 주의법

서로 육아에 혼수 대신 칭찬을 아끼는 노하우

육아대디 지지법

아빠들의 육아에 칭찬, 격려, 응원하기

드든육아 동참법

함께 육아, 아이 안전 지킴, 나누기.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불균형개선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가 함께 합니다

풍수 사주

수강생 수시 모집 및 상담

풍수와 사주(명리)를 한번에~

구슬이 세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개강 (초급 및 중급)

- 일 시 : 2018. 10. 30(화) 오후 7시
- 장 소 :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 → 무등산방향입구 우측2층)
- 수강료 : 풍수 + 사주 15만원(매월)

공개강좌

- 일 시 : 2018. 10. 23(화) 오후 7시
- 장 소 :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 누구나 (선착순 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천기비법 대 공개
- 기감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납골 및 수목장 수맥파 중화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보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궁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 010-2246-1508

펜션·가든 부지 매매

- ▶ 고창군 고수면 문수로 171
- ▶ 대지 및 전답 4,000m²(전평 정남향)
- ▶ 2차선 도로, 계곡 200m 접해 있음
- ▶ 부속건물 / 한옥 / 수영장 / 방갈로
- ▶ 장성 편백숲 5분거리
- ▶ 문수사 단풍숲 2분거리

010-3768-0615

010-3799-3830

주인 직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